

#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 館長挨拶：シンポジウムに向けて

メタデータ	言語: ja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石毛, 直道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a href="http://hdl.handle.net/10502/1625">http://hdl.handle.net/10502/1625</a>

## 館長挨拶：シンポジウムに向けて

石毛 直道

「2002年韓日FIFAワールドカップ」が閉幕いたしました。日本チームの活躍とともに、アジアで初めて韓国チームが4強に進出したこと、そして日韓の共同開催により両国に新たなきずなが生まれたことを心から喜びたいと思います。

この大会を契機として2002年は「日韓国民交流年」となりました。これを記念して韓国国立民俗学博物館と本館においても、両国民の相互理解に資するため生活文化の展示を共同で開催しました。韓国の国立民俗博物館における「近い隣の国、日本」展は、一足先に5月6日に閉幕いたしました。たいへん好評であったと伺っております。

私ども国立民族学博物館で開催いたしました特別展「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暮らし」も、7月16日にまもなく閉幕を迎えます。おかげさまで6万人近いたいへん多くの皆様に観覧していただきました。

さて、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この特別展の基礎となった「李さん一家」の生活財調査をふまえて、韓国社会ひいては民族学における生活文化研究の展開を図るものです。生活財調査は、今和次郎先生の考現学に始まりますが、私を含め、栗田靖之教授の『生活財生態学』（株式会社CDI、1976年）など、本館においてもその研究を引き継いできました。

私はもともと考古学を勉強し、それから民族学に転じました。考古学と今和次郎先生の考現学は一字違うだけです。考古学は発掘などによって発見された物質文化の資料を徹底的に調べることによって古代について語ろうという学問です。これに対して、現代の物質文化を徹底的に調べることによって現代という時代について語ろうとするのが考現学です。

考古学を専攻した人間として、はじめは考現学という一字違いの学問の名前に興味をもって、どんなものかを調べてみたことがあります。その後東アフリカでの物質文化の調査など、私も考現学的手法を用いて民族学研究をおこなった経験もあります。

今和次郎先生はすでに亡くなりましたが、1970年代に日本生活学会ができた時、初代の会長となられました。物質文化を考現学的に扱うということは生活の研究と密接な関係をもつものです。

そうした伝統のうえにたつて、今回の「李さん一家」の生活財調査は、それを調査だけではなく博物館展示にまで発展させたところに特徴があります。そして、この調査に基づき収集された資料は、展示はもとより、2002年のソウルの暮らしを記録し、未来にむけてタイムカプセルとして保存するという意味でも意義のあるものです。しかし、こ

れを展示と記録・保存に終わらせず、さらに研究のレベルにおいても、ぜひとも活用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本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李さん一家」の生活財調査データの検証を通して、韓国の生活文化の研究とその方法論について議論を深めてくださるよう願います。

最後に、韓国から物質文化研究者の皆様をお招きいただきましたが、本館共同研究「韓国現代生活文化の基礎的研究」のメンバーとともに、日韓共同での研究のさらなる発展を期待しております。

カムサハムニダ。

## 관장인사 심포지움을 맞이하여

石毛 直道

“2002년 한일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본팀의 활약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팀이 4강에 진출한 것 그리고 일한 공동개최를 통하여 양국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하여 2002년은 “일한 국민교류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한국 국립민속박물관과 본관에서는 두나라 국민이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생활문화 전시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국립민속박물관에서의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전은 한발 이른 5월 6일에 폐막하였지만 호평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시 “2002년 서울 스타일——이선생님댁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도 7월 16일에 폐막하게 됩니다. 덕분에 6만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우리 전시를 관람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이 특별전시의 기초가 된 “이선생 가족”의 생활재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사회를 나아가 민족학에 있어서의 생활문화 연구의 전개를 시도한 것입니다. 생활재조사는 곤와지로(今和次郎) 선생님의 고현학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구리타야스유키(栗田靖之) 교수의 「생활재 생태학」(주식회사 C D I, 1976년) 등 본관에서는 이 연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저는 원래 고고학을 공부하였고 그 후에 전공을 민족학으로 옮겼습니다. 고고학과 곤와지로(今和次郎) 선생님의 고현학은 1자 다를 뿐입니다. 고고학은 발굴등으로 발견된 물질문화의 자료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고대에 대하여 논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현대의 물질문화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현대라는 시대를 논하고자 하는 학문이 고현학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써 처음에는 고현학이라고 하는 1자 다른 학문에 관심을 가져 어떤 학문인가 공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동아프리카에서의 물질문화 조사등 고현학적인 수법으로 민족학 연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곤와지로(今和次郎)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1970년대에 일본생활학회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물질문화를 고현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생활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입각하여 이번 “이선생 가족” 생활재조사는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전시에까지 발전시킨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시는 물론이고 2002년 서울 생활을 기록하고 미래를 향한 타임 캡슐로써 영구 보존한다는 뜻에서도 그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시와 기록 보전에 그치지 않고 더욱 연구의 차원에서도 활용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심포지움에서도 “이선생 가족”의 생활재 조사자료의 검증을 통하여 한국의 생활문화 연구와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물질문화 연구자이신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본관 공동연구인 “현대 한국 생활문화의 기초적인 연구”의 멤버들과 함께 일한공동으로 연구하는 작업들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